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오은정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un-Jeung Oh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J, K 도시의 282명의 간호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역량

Abstract The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Data on subject's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 During September and December 2019, data were collected from 282 nursing students in J and K c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1.0 programs.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lso, communication abi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se finding indicate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education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together whe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hat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e.

Key Words :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Eun-Jeung Oh(ohj3305@wu.ac.kr)

Received January 2,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January 17,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전문인 인재상을 위한 교육목표 중 대인관계능력 함양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건강전문인들 간의 치료 및 협력적인 관계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역량이다. 간호사가 건강전문인과 치료적이고 협력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대인관계역량이 필요하다[1]. 이러한 이유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대상자와 보호자 그리고 기타 전문의료 인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병원조직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대학교육에서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3학년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심리적·신체적 질병으로 고통 받고있는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수립을 위해 의사소통기술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맺게 되며,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간호중재를 시작하게 된다[2].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전공기초교과목을 통하여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 우울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와 접촉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3, 4].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습을 방해하기도 하며 진로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5].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에 대한 적극성 또는 의욕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직무와 관련하여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작업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이었으며, 간호사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작업기초능력 또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으로 분석되었다[7]. 이렇듯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인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고, 대인관계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간호학에서는 의사소통능력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로 자아인식, 타인인식, 감성지능,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등이 있었으며[2, 8, 9],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로는 감성지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있었다

[10-12].

이러한 변인 중 자기인식은 대인관계 또는 의사소통관련 전공기초 교과목과 정신간호학이론 교과목에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 전에 점검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3, 14]. 자기인식은 자신에 대한 태도와 수용으로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구이다[15]. 또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기인식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대인관계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게 된다[16]. 이처럼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이해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핵심적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감능력이다[14]. 공감은 대상자의 경험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느낌 그대로 느껴보고, 자신의 것으로 재경험하여 보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여 객관적으로 대상자에게 언어적으로 전달하고, 대상자의 내면적 동기를 찾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13, 17].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언어적 표현으로 대상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으며,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간호제공자에게 신뢰감이 형성되어 대인관계가 증진된다[13]. 따라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감성지능은 간호학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8, 19].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감성이해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여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대상자의 질병특성으로 나타나는 돌발적 언행에 대하여 공격적 또는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2]. 이러한 공격적·방어적 태도는 대상자로 하여금 무가치감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하여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저해시킨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상자와의 관계가 치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성지능을 향상시켜야 한다[19, 20].

이와같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자기이해,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 및 비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파

악하여 이해하여 주는 공감능력,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감성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13, 17, 19]. 대학생 핵심역량진단사업(K-CESA : Korea Collegiate Essential Assessment)에서 제시하는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인 대인관계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인식과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의사소통능력과 그와 관련된 변인의 상관성 연구[2, 8],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변인의 상관성 연구[10, 21],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의 상관성 연구[11, 12, 22]가 대부분이었다. 즉,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2, 8]와 이들 요인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10, 15, 22]이었다. 그러나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임으로써 대인관계역량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 요소들이 대인관계역량에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과정과 임상현장 실습에서 경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 교육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하는데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을 위한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인관계역량과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간호대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2곳의 J도시와 K시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 1~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회귀분석의 표본크기 산정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5개를 고려하여 G*Power 3.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199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설문 응답이 미비한 자료 38부를 제외하고 총 282부 88.1%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W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승인번호 WKIRB-201906-SB-048]를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0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J, K시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 4개교에 연구자가 해당 간호학과의 학부장, 학과장과 담당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방법과 소요시간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 날인 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각각의 봉투에 담아 수거하여 대상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자기인식

자기인식이란 자기 자신의 내적 사고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평가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로 타인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말한다[23]. 본 연구에서의 자기인식은 Fenigstein, Scheier와 Buss[24]의 자기인식검사를 Eun[23]이 수정·보완한 자기인식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un[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4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5이었다.

2.4.2 공감능력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감정이입을 통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껴보는 것으로 대상자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서를 지각하여 그 사람의 긍정적인 내면적 동기를 찾아 객관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을 말한다[13]. 본 연구에서는 Boyatzis [25]가 개발한 Emotional competency Inventory의 문항 중 Jin [17]이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인 Oh[19]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이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이며,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2.4.3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감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29].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27]가 개발한 Wong & Law'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Choi[2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LEIS는 총 16개 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소인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정조절, 감성활용에 대한 감성지능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여 개인적으로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8]. 본 연구에서는 Lee 등[28]이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도구로 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과 메시지전환능력의 5개 하위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9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매우 드물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70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2이었다.

2.4.5 대인관계역량

대인관계역량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에서는 Schlein, Guerny와 Stover[30]가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Moon[31]이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신뢰감, 의사소통,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6개 하위영역으로 총 18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Moon[3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은 t-test와 One-way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변수의 정규성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32]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조합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 후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대인관계역량 차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43명으로 86.2%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3.4±5.8세이었다. 학년은 4학년 101명(35.8%), 2학년 71명(25.2%), 1학년 64명(22.7%), 3학년 46명(16.3%) 순으로 4학년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는 절반 이상인 173명(61.3%)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경제상태 또한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36명(83.7%)이었다. 주거상태의 경우 자택이 138명(48.9%), 자취 및 하숙이 81명(28.7%), 기숙사 63명(22.3%)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의사소통교과목 수강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59명(91.8%)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경험이 있었으며, 과거 의사소통 훈련경험의 경우도 훈련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64명(58.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130명(46.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은 과거 의사소통훈련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40, p=.047$). 이외의 일반적 특성은 대인관계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Difference in Interperson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2)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Interpersonal Competence	
			M±SD	t or F(P)
Age		23.41±5.82		
Gender	Male	39(13.8)	3.66±0.44	0.25(.801)
	Female	243(86.2)	3.64±0.44	
Grade year (age)	1	64(22.7)	3.69±0.43	0.42(.741)
	2	71(25.2)	3.60±0.45	
	3	46(16.3)	3.63±0.44	
	4	101(35.8)	3.64±0.45	
Religion	Yes	173(61.3)	3.61±0.44	-1.20(.232)
	No	109(38.7)	3.68±0.44	
Economic status	High	10(3.5)	3.71±0.40	1.93(.147)
	Middle	236(83.7)	3.66±0.45	
	Low	36(12.8)	3.51±0.41	
Residential status	Home	138(48.9)	3.67±0.43	0.90(.406)
	Boarding house OR lodging	81(28.7)	3.63±0.47	
	Dormitory	63(22.3)	3.58±0.44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259(91.8)	3.64±0.45	0.69(.504)
	No	13(4.6)	3.64±0.39	
	In class	10(3.5)	3.48±0.36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training	Yes	164(58.2)	3.68±0.45	1.40(.047)
	No	118(41.8)	3.58±0.42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60(21.3)	3.66±0.40	1.76(.174)
	Satisfactory	130(46.1)	3.68±0.46	
	Not satisfactory	92(32.6)	3.57±0.43	

3.2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의 정도

Table 2. The Degree of Nursing students on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282)

Variables	Min	Max	M±SD
Interpersonal Competence	2.44	5.00	3.64±0.44
Communication Ability	2.69	4.51	3.53±0.33
Self-awareness	2.55	4.25	3.37±0.32
Empathy	1.57	7.00	5.10±0.84
Emotional Intelligence	2.56	6.63	4.83±0.78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4±0.44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3±0.33점이었다. 자기인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7±0.32점,

공감능력은 7점 만점에 5.10±0.84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의 평균은 7점 만점에 4.83±0.7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은 감성지능($r=.66, p<.001$), 공감능력($r=.64, p<.001$), 의사소통능력($r=.63, p<.001$)과 자기인식($r=.58, p<.001$)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r=.68, p<.001$), 자기인식($r=.66, p<.001$), 감성지능($r=.65, p<.001$)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인식은 감성지능($r=.62, p<.001$), 공감능력($r=.58, p<.001$) 순으로, 공감능력은 감성지능($r=.6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282)

Variables	Communication Ability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r(p)	r(p)	r(p)	r(p)
Interpersonal Competence	.63 (<.001)	.58 (<.001)	.64 (<.001)	.66 (<.001)
Communication Ability		.66 (<.001)	.68 (<.001)	.65 (<.001)
Self-awareness			.58 (<.001)	.62 (<.001)
Empathy				.68 (<.001)

3.4 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역량과 자기인식, 공감능력 및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방법론에 따라 3단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도표를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2.007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였으며, VIF지수는 1.738~2.184로 모두 10보다 작아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을 경유하여 대인관계역량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은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Bootstrapping에 의해서 측정된 경험적 분포에 근거한 재추출 표본수는 10,000개였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Bootstrapping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 표본의 95% 신뢰구간이 0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33].

3.4.1 대인관계역량과 자기인식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과정의 1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자기인식은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eta=.66, p<.001$). 2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인식은 대인관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8,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자기인식($\beta=.28, p<.001$)과 의사소통능력($\beta=.44, p<.001$)은 대인관계역량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자기인식의 효과가 3단계 회귀계수($\beta=.28$)가 2단계 회귀계수($\beta=.58$)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인식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44.0%이었다(Table 4).

대상자의 자기인식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Bootstrapping 결과, 자기인식이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변수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0.41이었으며, 신뢰구간 95%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이 0.28~0.55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3.4.2 대인관계역량과 공감능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과정의 1단계에서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beta=.68, p<.001$)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2단계에서 자기인식은 대인관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4,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공감능력($\beta=.40, p<.001$)과 의사소통능력($\beta=.36, p<.001$)은 대인관계역량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공감능력의 효과가 3단계 회귀계수($\beta=.40$)가 2단계 회귀계수($\beta=.64$)보다 적은 것으로

로 나타나 자기인식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48.2%이었다(Table 4).

대상자의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Bootstrapping 결과,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을 매개 변수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0.13이었으며, 신뢰구간 95%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이 0.08~0.18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4.3 대인관계역량과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과정의 1단계에서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beta=65, p<.001$)과 유의한 결과를, 2단계에서도 감성지능은 대인관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감성지능(β

$=.44, p<.001$)과 의사소통능력($\beta=.35, p<.001$)은 대인관계역량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감성지능의 효과가 3단계 회귀계수($\beta=.44$)가 2단계 회귀계수($\beta=.6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설명력은 50.6%이었다(Table 4).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Bootstrapping 결과,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을 매개 변수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0.13이었으며, 신뢰구간 95%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이 0.07~0.18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N=282)

Variables	Categories	B	SE	B	t	p	Adj. R ²	F	p
Step 1	Self-awareness → Communication Ability	.69	.05	.66	14.88	<.001	.439	221.28	<.001
Step 2	Self-awareness → Interpersonal Competence	.81	.07	.58	11.86	<.001	.332	140.63	<.001
Step 3	Self-awareness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Competence	.40	.08	.28	4.75	<.001	.440	111.51	<.001
		.60	.08	.44	7.43	<.001			
Step 1	Empathy → Communication Ability	.26	.02	.68	15.43	<.001	.458	238.06	<.001
Step 2	Empathy → Interpersonal Competence	.34	.02	.64	14.09	<.001	.413	198.47	<.001
Step 3	Empathy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Competence	.21	.03	.40	6.831	<.001	.482	131.59	<.001
		.49	.08	.36	6.19	<.001			
Step 1	Emotional Intelligence → Communication Ability	.28	.02	.65	14.47	<.001	.426	209.26	<.001
Step 2	Emotional Intelligence → Interpersonal Competence	.38	.03	.66	14.86	<.001	.439	220.86	<.001
Step 3	Emotional Intelligence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Competence	.25	.03	.44	7.90	<.001	.506	144.75	<.001
		.47	.08	.35	6.23	<.001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B	SE	B	t	p	B	SE	B	t	p	B	SE	B	t	p
상수	1.25	.13		9.30	.000	.98	.19		5.05	.000	.66	.22		3.02	.003
Self-awareness	.35	.05	.34	6.71	.000	.28	.08	.20	3.66	.000	.19	.80	.13	2.33	.000
Empathy	.13	.02	.34	6.17	.000	.16	.03	.30	5.13	.000	.12	.03	.24	3.84	.000
Emotional Intelligence	.09	.02	.22	3.82	.000	.19	.04	.34	5.56	.000	.17	.04	.30	4.83	.000
Communication Ability											.26	.09	.19	2.98	.003
Adj. R ²	.589					.526					.539				
F	135.24(P<.001)					105.03(P<.001)					83.21(P<.001)				

Table 5. Bootstrapping Results on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N=282)

Variables	Indirect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Self-awareness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Competence	.41	.07	.28	.55
Empathy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Competence	.13	.03	.08	.18
Emotional Intelligence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Competence	.13	.03	.07	.18

Boot.=Bootstrapping;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은 의사소통훈련경험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훈련경험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는 의사소통훈련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훈련 경험 없는 학생보다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함양에 있어서 의사소통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Kim[11]의 연구결과인 3.65점과 유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Yang[21]의 연구결과인 3.74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Yang[2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자와는 달리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라면 실시한 연구결과로, 임상실습경험을 통해서 대상자와 상호작용한 실제 임상사례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의 여러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고무시킨 결과 대인관계역량이 증진된 결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대인관계역량 점수를 나타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Jeoung과 Lee[34]의 3.59점과 유사하였으며 Kim[11]의 3.49점과 Park 등[35]의 연구결과에서의 3.42점보다 높은 결과이며, Kim 등[36]의 3.65점보다는 낮은 결과이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교양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교과목과 임상실습 중 의사소통훈련이 의사소통능력증진에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11, 21, 34]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시행 후 의사소통능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유지되지 않았다[37].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내보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호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의 역할 중 대상자 교육과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7].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지속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행동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기술을 발전시키고 행동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7, 34]. 아울러 의사소통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Kim 등[36]의 연구에서의 3.38점, Park 등[35]의 연구에서의 3.32점, Oh 등[2]의 연구결과인 3.40점과 유사한 점수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정도는 Eun[23]이 정의한 바와 같이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내적사고와 동기에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정도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7점 만점에 평균 5.13점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 중심적 관점에서보다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관심공감 정도[17, 19]가 중간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간호대학생의 공감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없어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뒷받침할 연구가 미비하다. 간호대학생을 위한 표준화된 공감능력 측정 도구의 부재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공감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가 선행되

어 동일한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4.83점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인 Kang 등[20]의 4.18점 연구결과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Hong[39]의 4.95점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4학년이 3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Kang 등[20]의 연구는 1학년이 27.6%로 가장 많은 대상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Hong[39]의 연구는 대상자가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대상자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감성지능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적용은 저학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인관계역량은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ee[12], Kim[11], Ko와 Kim[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Gardner 등[29]이 정의한 것과 같이 타인의 마음, 감정과 느낌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감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역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2, 18]. 또한 대인관계역량은 자기인식과 공감능력도 보통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eoung[10], Kim[11], Jeoung[14]과 Chae[3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 태도, 사고 등을 더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어 대인관계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23].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형성은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느낌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여 다른 사람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 그의 정서를 지각하여 긍정적인 내면적 동기를 찾아 표현해주는 공감성이 필요하다는 Lee 등[13]과 Chae[38]와 맥락을 같이하는 연구결과로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역량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상술된 4가지 변인이 간호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대인관계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다양한 교육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

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Park 등[35], Kim 등[36]과 Chae[38]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감성지능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능력을 매개역할로 하였을 때도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인식과 공감능력은 의사소통관련 교과목에서는 알려져 있으나 감성지능의 경우 간호교과목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간호교과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감성지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을 매개효과로 하였을 경우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Jeoung과 Lee[34]의 연구결과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보다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역량에 있어 다른 변인보다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검증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 효과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을 개발해야하는 것 뿐만아니라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교과과정에서의 의사소통교육은 대부분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 지식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8].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의 실질적인 효과 증진을 위하여 실제 경험할 수 있는 role play 및 시뮬레이션 같은 다양한 교수법 개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은 이들의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4가지 주요변인은 간호교육의 효율적인 성과에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과 기술이다. 즉, 간호대학생이 자기인식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감정상태를 알아채고 받아들이며[23],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고 그 느낌을 이해하는 공감력과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기감정을 잘 조절하여 활용하는 감성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13, 26].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인 인재상을 위한 교육목표인 실무능력과 건강전문인들 간의 치료 및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역량인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역량 및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분석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은 의사소통능력,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며 이들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역량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간호교육과정의 의사소통 및 기타 정신간호관련 교과목에서는 대상자와 병원내 건강전문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치료 및 협력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자기인식 또는 자기이해에 대한 내용과 치료적 또는 효율적 의사소통방법으로 공감능력과 이외 다양한 의사소통술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신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감정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간호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감성지능 증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도시의 4개 간호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의사소통능력 이외 다른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H. Gardner, M. I. Kornhaber, W. K. Wake. (1995). *Intelligence: Multiple perspectives*. Toronto: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
- [2] E. J. Oh, S. H. Ko, J. Y. Kim, S. S. Kim. (2015).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1(4), 426-434.
DOI: <http://dx.doi.org.proxy.jbnu.ac.kr/10.11111/jkana.2015.21>
- [3] I.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37-345.
DOI: <http://dx.doi.org.proxy.jbnu.ac.kr/10.5977/JKASNE.2011.17.3.337>
- [4] H. Nasrin, P. Soroor, J. Soodabeh. (2012). The miracle of communication as a global issue in clinical learning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7, 1775-1779.
DOI : <https://doi.org/10.1016/j.sbspro.2012.06.899>
- [5] Y. H. Ahn & J. Choi. (2019). Incivility experiences in clinical practicum education am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73, 48-53.
DOI : <https://doi.org/10.1016/j.nedt.2018.11.015>
- [6] J. E. Bai. (1999).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8(2), 411-423.
- [7] H. S. Hwang, S. E. Jeung, E. H. Cho. (2018). A study on the use of narrative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217-239.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1238>
- [8] M. R. Han & H. K. Kim. (2017).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2), 263-272.
DOI : 10.14400/JDC.2017.15.2.263
- [9] M. K. Cho & H. Jeung. (2018).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39-547.
DOI : 10.15207/JKCS.2018.9.11.539

- [10] M. Jeoung. (2015).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14-4620.
DOI:http://dx.doi.org.proxy.jbnu.ac.kr/10.5762/KAIS.2015.16.7.4614
- [11] Y. S. Kim. (2018). 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8(10), 773-782.
- [12] M. J. Lee. (2018).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y and clinical performance*. Masteral dissert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 [13] K. J. Lee, S. H. Ko, S. Lee, K. H. Kim, S. Y. Min, Y. J. Choe et al. (2015).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eoul: Shinkwang.
- [14] S. J. Kim et al. (2016).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Seoul : Hyunmoonsa Publishing.
- [15] J. W. Park & M.S S.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18(3), 351-630.
- [16] S. B. Im. (2006).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awareness. *Health Communication*, 1(1), 59-66.
- [17] Y. Jin. (2010). Emotional leadership as a key dimension of public relations leadership: a national survey of public relation leader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2(2), 159-81.
DOI : https://doi.org/10.1080/10627261003601622
- [18] H. R. Ko & J. H. Kim.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413-423.
DOI:http://dx.doi.org.proxy.jbnu.ac.kr/10.5977/jkasne.2014.20.3.413
- [19] E. J. Oh, M. H. Lee, S. H. Ko. (2016).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on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25(4), 283-293.
- [20] H. S. Kang & Y. Y. Kim. (2016). Influ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on turnover inten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141-151.
DOI:https://doi.org/10.5762/KAIS.2016.17.1.141
- [21] Y. K. Yang.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2), 99-108.
- [22] M. S. Jeoung. (2014).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39.
- [23] H. G. Eun. (2001).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 136-157.
- [24] A. Fenigstein, M. F. Scheier, A. H. Buss.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DOI : http://dx.doi.org/10.1037/h0076760
- [25] Boyatzis, RE. (2000). How and why Individuals are able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253p. (Cherniss C, Goleman D, editors. The emotionally intelligent workplace: how to select for, measure, an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in individuals, groups, and organizations).
- [26] J. H. Choi. (2010). Relationship betwee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asters thesis]. [Suwon]: A Jou University.
- [27] C.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74.
DOI :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28]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29] H. Gardner, M. L. Kornhaber, K. Wake. (1995). "Intelligence : Multiple perspective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30] S. Schlein, B. Guerny, L. Stover.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a University, Philadelphia.
- [31]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3.
- [3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33] P. E. Shrout &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34]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DOI :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35] S. J. Park, K. S. Kang, G. H. Kim, J. Y. Park, G. R. Yang GR. (2019). Effects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empathy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4(2), 103-108.
DOI : 10.15715/kjhcom.2019.14.2.103
- [36] G. H. Kim, E. K. Han, D. H. Kim, S. H. Kim, J. E. Kim et al. (2020).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and empath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7), 451-465.
DOI :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7.451>.
- [37] K. A. Shin, E. S. Lee. (2011).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49-158.
DOI: <http://dx.doi.org.proxy.jbnu.ac.kr/10.5977/JKASN.E.2011.17.2.149>
- [38]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6.17.5.95>
- [39] J. Q. Hong. (2020). Influence of self-awareness,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7), 551-568.
DOI: <http://www.riss.kr.proxy.jbnu.ac.kr/link?id=A106662241>

오 은 정(Eun-Jeung Oh)

[정회원]



- 2013년 8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의사소통

· E-Mail : ohj3305@wu.ac.kr